

# “무승 치욕 씻자”...광주FC, 포항전 첫승 버린다

역대 전적 0승 6무 12패

K리그 21팀 중 유일하게 승리 못해

주전들 체력 안배·부상 선수 복귀

내일 홈경기 기다렸던 첫승 기대

전남은 18일 광양서 김천상무전

광주FC가 홈팬들과 포항전 첫승을 위해 함께 달린다.

광주가 17일 오후 7시 광주죽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2021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4일 인천전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으로 전용구장 첫승을 달성한 광주는 7일 수원FC를 상대로 시즌 첫 무실점(2-0) 경기를 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성남 원정에서 0-2패를 기록한 광주는 14일 진행된 부산교통공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내렸다.

연승 뒤 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소독은 있었다. 부산교통공사와의 FA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했고, 경

기가 부족했던 선수들에게는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4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송승민이 복귀골을 신고했고, 이준용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어필 무대를 가졌다.

김효기를 비롯해 한희훈, 박광선 등 베테랑들도 최전방과 최후방에서 부지런히 뛰며 선수단의 사기와 투지를 끌어 올렸다.

부상 복귀도 있었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두현석과 박준강이 이날 그라운드에 복귀하면서, 정규리그에 집중하게 된 광주에는 선수단 구성 옵션이 늘었다.

광주로서는 기다렸던 승부다.

‘강적’들을 상대로 광주만의 축구를 선보이며 극적인 승리를 연출해왔지만, 포항에만 승리가 없다. 포항과의 역대 전적은 0승 6무 12패. 포항은 K리그 21개 팀 중 유일하게 광주가 승리를 챙기지 못한 팀이다.

역대전적에서는 일방적인 열세지만 석패가 많았다. 최근 맞대결인 지난 시즌 23라운드 대결에서도 치열한 공방전 끝에 3-5패가 기록됐었다.

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해 6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포항은 지난 라운드 서울 원정에서 2-1로 이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또 주중 FA컵 일정이

없이 넉넉히 휴식을 취했다. 송민규와 강상우 등 핵심 선수들의 경기력도 위협적이다.

하지만 송민규, 강상우 의존도가 크다는 게 포항의 약점이다.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도 100%가 아닌 만큼 중원에서부터 촘촘한 그물망 수비로 상대를 묶은 뒤 헤이스, 펠리페, 엄지성이 빠르게 공격 전개에 나선다면 애초에 기다렸던 포항전 승리도 가능하다.

광주가 아쉬운 원정 결과를 뒤로하고 홈 3연승과 함께 포항전 첫 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FA컵에서 승리 행진을 이어간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18일 오후 4시 광양전용구장에서 김천상무와 K리그2 2021 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극적인 승리로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전남은 지난 11일 안산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알렉스의 시즌 마수결이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극장골’로 승점 3점을 더하며 4위로 올라선 전남은 지난 14일 K리그1 수원FC와 벌인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승자가 됐다.

현재 2위 서울이랜드까지 승점 2점 차로 가시권에 있다. 뒷심으로 분위기를 살린 전남은 연승으로 순위 싸움에 불을 지피겠다는 각오다.

/김여울 기자 woor@kwangju.co.kr



광주FC가 17일 오후 7시 안방에서 홈3연승과 포항전 첫승을 동시에 노린다. 사진은 지난 4일 인천과의 7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이희균(왼쪽에서 두 번째)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 <광주FC 제공>

## 호남대 남자 탁구·씨름팀 창단...선수 각각 6명·4명

호남대학교 남자 탁구팀과 씨름팀이 창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5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호남대학교 남자탁구팀·씨름팀 창단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시체육회, 호남대, 탁구협회, 씨름협회 등 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

호남대는 2018년 여자탁구팀 창단 이후 이번에 남자 탁구팀을 출범시켰다. 호남대는 현재 선수 6명이 재합하고 있어 팀을 창단하게 됐다.

호남대는 2019년부터 씨름선수를 꾸준히 선발해 경장급 1명, 용장급2명, 정장급 1명 총 4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씨름팀 창단은 광주지역 민속씨름육성을 염원하는 씨름인들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한다. 씨름협회 김종택 회장은 “호남대 씨름팀 창단을 계기로 지역 씨름이 전성기를 맞이 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체육회 이평형 사무차장은 “씨름·탁구팀 선수들이 성장해 개인의 영광은 물론 시민들의 성원으로



보급해 줬으면 한다”며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남대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축구, 배구(남·여), 펜싱(남·여), 불링(여), 탁구(여), 태권도 등 6개 종목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학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내일 개막

‘2021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17일 개막해 이틀간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라이딩하우스가 주최하고 영암군이 후원하는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은 자동차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모터사이클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모터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5년부터 라이딩하우스가 매년 4회 개최하는 모터사이클 종합 스피드 축제다.

국내 최상위급 1000cc의 바이크가 참가하는 ‘K1’을 비롯해 600-1000cc 배기량의 아마추어가 주행하는 ‘K2’, 500cc 이하 입문자를 위한 ‘K3’ 등 다양한 모터사이클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18일 1전에서는 1바퀴(1Lap)를 가장 빠른 시간에 주행한 바이크가 우승하는 타임트라이얼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터사이클’과, 영국의 레이싱 전용 차량으로서 1350-1500cc 배기량에도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3초 만에 주파하는 ‘레디칼’이 60분간 내구레이스로 함께 열린다.

5월 2일 2전에서는 정해진 거리를 가장 빠르게 주행하는 스피린트 방식으로 바뀐다. 6월 6일 3전은 6시간 동안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한 바이크가 우승하는 내구레이스로 운영한다. 10월 31일 4전은 8시간 동안 선수와 바이크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내구레이스로 펼쳐진다.

이번 1전은 무관중으로 운영한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선수와 대회 관계자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올해로 창사 10주년을 맞은 라이딩하우스는 모터사이클 레이싱의 저변확대 및 선수발굴을 위해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을 교육하는 ‘영암 트랙픽 에듀케이션 센터’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체육회 법인 창립 총회...6월 사단법인 출범

정관 제정 등 안건 심의·의결

전남도체육회가 법인설립 창립 총회를 열었다. 전남도체육회는 15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 회장, 이완식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전라남도체육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을 부칙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명시됨에 따라 지난 1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전남도체육회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임원 선임, 출연 재산 채택, 주 사무소 설치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도체육회는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6월 9일 사단법인 전라남도체육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재무 회장은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계기로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성과 역할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전라남도 체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 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한 전남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챔스리그 4강 확정 맨시티 vs PSG, 첼시 vs 레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리버풀(잉글랜드)을 누르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안착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5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달 7일 열린 1차전에서 3-1로 이겨 우위를 점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3-1로 4강 진출을 확정했다.

대회 최다 우승팀(13회)인 레알 마드리드는 2017-2018시즌 이후 3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레알 마드리드가 UCL 4강에 오른 건 이번이 14번째, 전신인 유로파안컵을 포함하면 30번째로 모두 최다 진출 기록이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잉글랜드)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1, 2차전에서 연달아 격파하며 2015-2016시즌 이후 5년 만에 4강에 올랐다.

맨시티는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에

서 열린 8강 2차전에서 리아드 마흐레즈와 필 포든의 득점포를 앞세워 2-1로 이겼다.

1차전에서도 2-1로 앞선 맨시티는 합계 4-2로 도르트문트를 꺾었다.

선제골은 전반 15분 도르트문트의 주드 벨링엄이 뽑아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17세 289일의 벨링엄은 UCL 녹아웃 경기에서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맨시티가 후반 주도권을 가져왔다. 맨시티는 후반 10분 엠레 잔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고 마흐레즈가 성공시켜 균형을 맞췄다.

후반 30분에는 포든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찬 기습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려 맨시티의 승리를 매조졌다.

이로써 UCL 4강 대진이 확정됐다.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잉글랜드)와 격돌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앙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복
2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단환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모탈 컴뱃 고질라 VS. 콩
4관	서복
5관	서복
6관	서복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노바디
7관 씨네카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자신아보, 미나리
8관 씨네카를	어른들은 몰라요, 최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